光日春秋

김 용 택

# 생각 대로 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유가 급등,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중국산 멜라민 분유 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가뭄과 늦더위는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러한 기후변화의 낌새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바꾸려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위기가 우리 살림살이의 위기가 될 줄을 우리 같은 것들이 어찌 알고, 어마 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의 은행이 망할 지를 우리 같은 것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 나라 일꾼들의 긴장된 얼굴들을 화면으로 보며 우린 그냥 덜컥덜컥 겁이 날 뿐이었습니다. 넥타이 풀고 회의하는 그들의 입과 얼굴을 살피는 언론들도 모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숨이 차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아우성만 칠뿐 이 명백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그 어떤 현실적 타개책도, 장기적 계획도, 대안도 없이 슬그머니 위기의 꼬리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위기는 문제의 핵심과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지요. 이런 위기를 맞아 모두들 입을 모아 어렵다고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거리에 차량의 물결은 넘치고 주말이면 차들이 고속도로와 산과 들을 매웁니다. 식당과 술집은 사람들로 넘치고, 거액을 쏟아 부은 지자체들의 내용 없는 축제의 애드벌룬은 이 고을 저 고을의 가문 하늘에 둥둥 뜬구름을 잡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뻥 같지요. 혹 이 위기의 국면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인지도 모르지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려면 그러라는 똥배짱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는 또 옵니다. 다시 올 위기의 파고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구체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혼돈과 공포의 파고는 일순간에 우리들의 일상을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하게 실감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글로벌하다해도 문제의 단초는 우리에게 있고, 그 해결 방법의 실마리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을 제일로 치는 가치와 덕목을 재고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문화도 예술도 진정한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이란 무엇입니까. 지식과 자본의 세계적인 공유를 의미합니다. 지식은 세계화되고 다국적 시장에 맡긴 자본은 큰 물방울로 쉽게 빨려갑니다.

자본과 지식의 공유는 이제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사고를 요구합니다. 큰 문제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험만 잘 보는, 나 홀로 똑똑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이미 그 생명력을 다 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풍요로운 인간정신에서 오는 창조적인 인간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자본에 기댄 삶의 가치 척도는 폐기되고 자연과 생태와 순환에, 그리고 땅에 대한 투자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돈은 인간정신을 끝없이 파괴합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삶과 자연, 친화적인 가치와 다양한 문화의 가치에 가까이 다가갈 때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날은 밝은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눈을 감은 채 몽당빗자루를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낡은 가치에 기댄 모든 장치는 새롭게 수리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독점은 한군데가 무너지면 다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리 인색합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낡은 이념들을 붙잡고 안간힘을 씁니까. 사회의 모든 독점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음모지요.

경제의 민주화는 인류 생존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우리 인류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쳐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한정된 지구 자원 고갈은 인류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 맑은 물, 그리고 / 친구들의 사랑 / 이것만 있거든 낙심하지 마라.'- 괴테의 시입니다. 지금 음미할 만한 내용입니다.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 상 연

# 헬리콥터의 무한도전

헬리콥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아파치처럼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적군에게 접근 탱크를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할 때만 헬리콥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명절 연휴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귀성행렬의 사진촬영, 육로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물자나 인원의 수송, 화재 현장에서의 소화와 구난작업, 농약살포 등에는 어김없이 헬리콥터가 등장한다.

이는 헬리콥터가 일반 비행기로는 할 수 없는, 호버링(공중정지), 전후진 비행, 수직 착륙, 저속비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헬리콥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비밀은 로터(회전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에 있다. 비행체가 뜰 수 있는 양력과 추진력을 모두 로터에서 동시에 얻기 때문이다.

로터에는 일반적으로 2~4개의 블레이드(날개)가 붙어 있다. 이 블레이드를 자세히 보면 작은 비행기 날개와 비슷하게 생겼다. 빠르게 회전하는 각각의 블레이드에서 비행기 날개와 같은 양력이 발생하는데 헬리콥터는 이 양력 덕분에 무거운 몸체를 하늘로 띄울 수 있다. 비행기 역시 엔진의 추진력에 의해 몸체가 점점 앞으로 빨리 날 때 양쪽 날개에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해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 헬리콥터의 비행원리는 비행기와 다르지 않다.

다만 비행기는 일단 공중에 뜨고 나면 앞쪽 날개의 조향장치와 꼬리날개의 수직날개를 좌우 방향을 틀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데 비해, 헬리콥터는 블레이드가 이 역할까지 한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블레이드 각을 조정하게 되면 상하 양력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블레이드 각이 크면 상승하는 양력이 발생하고 각이 수평으로 낮아지면 힘이 약해져 하강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 뜬 헬리콥터는 로터의 각을 조정하여 기체를 앞뒤 좌우로 움직인다. 로터를 앞으로 각을 세웠다, 뒤로 각을 세웠다 하면서 전진 후진을 조정하며, 이는 좌우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로터 하나에서 양력, 추진력, 조향방향을 동시에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 로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 헬리콥터가 비행기의 추진력과 같은 조건으로 양력을 얻기 위해 블레이드를 회전시킬 때 엄청난 반동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기체 몸통도 따라 같이 돌아가게 된다. 공중에 떠 있는 헬기가 팽이처럼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몸통이 돌아가려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장치가 필요해진다. 가장 일반적인 단식 주회전날개 헬리콥터는 꼬리부분의 작은 로터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헬리콥터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은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헬리콥터들은 최대 순항 비행속도가 대개 시속 300km 내외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수십 년 전에 비해서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제트비행기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거의 발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로터시스템의 기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회전날개를 무조건 빨리 돌릴 경우 날개가 부러지거나 로터 시스템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했다. 착륙할 때는 회전날개를 사용하고 순항 중에 방해가 되는 회전날개를 접거나 동체 속에 넣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헬리콥터 고유의 기능인 호버링, 수직 착륙, 저속비행에서 기동 등에서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이런 가운데 2008년 8월, 미국의 헬리콥터 생산업체인 시콜스키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헬리콥터'의 프로토콜타입 X2를 공개하고 시험비행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X2는 동일한 수직축에 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로터를 단 것이 특징이다. 이 방식으로 비행하면 이론적으로는 최고 시속이 464km를 넘어설 수 있다.

물론 X2는 어디까지나 실험기이며 이 자체를 실용화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개발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기존의 헬리콥터와 같이 호버링, 수직 착륙, 저속비행에서 기동할 수 있으면서도 고속 비행이 가능한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과학칼럼니스트〉

기 고

장 정 식

# 문화수도 척도는 독서인구 확산

밤새워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이 익어가는 서정을 느낀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을 가리켜 등화가친(燈火可親 : 가을 밤은 등불을 가까이하여 책읽기에 좋다는 뜻)의 계절이라 했던가. 역시 가을은 추야장(秋夜長) 깊은 밤을 지새워가며 책을 읽어도 지치지 않는 계절이다.

열대야의 찜통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여름을 생각하면, 가을은 우리에게 사시장철 머물게 하고 싶은 계절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 끝날 이 시원한 가을은 독서로써 우리의 예지를 날세워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일컬어왔다. 굳이 가을에만 책을 읽으랴만, 가을에는 가장 능률적인 독서를 하기에 최적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9월은 국민독서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독서의 달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책을 너무 멀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인의 독서량은 세계 1위라고 한다. 일본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이지만, 일본인들의 독서열은 부러워할 만큼 보편화되어 있다. 잠깐 타고 가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나 대합실 같은 데서도 그냥 서있거나 어울려 지껄이거나 한 사람이 거의 없다. 저들의 가방 속에는 책이나 간단한 읽을거리가 들어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이면 그것들을 꺼내서 읽는다. 서점에는 책 읽는 손님들로 가득하다. 크고 작은 서점을 가릴 것 없이 꽉 찬 손님들이 책 읽는데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준다.

우리의 영원한 국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란 이름을 붙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강도 심보에 증오와 저주를 보내지 않을 한국인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분노나 뚝심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독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과학문명의 발전이 저들을 앞질러야 하고, 생산기술이 저들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깨달아야 하는 지적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그것의 첩경은 곧 국민 독서의식 강화와 저변 확대다. 이것이 국력의 신장이다.

이제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고 문화수도로서 탈바꿈할 부푼 꿈을 안고 노력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에 역행하여 문화의 척도요 꽃이라 할 수 있는 서점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다. 76년간 3대에 걸쳐 광주의 서점문화를 이끌어온 삼복서점 본점이 문을 닫은 것은 문화수도 광주시민의 자긍심에 뼈아픈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충장로에는 '충장서림' 하나가 서점문화의 명맥을 힘겹게 유지해가고 있다. 이마저 경영난에 처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 속에 책 읽는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으면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수도의 유산으로 꽃피워가기 위해서는 책 읽는 시민정신이 확산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 또한 일등 광주, 일등 시민이 되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전 광주 동부교육장·수필가〉

# 사회적 편견 시달리는 질환 이름 바꾸자

가까운 친척이 간질병을 앓고 있다. 그는 간질병이라는 부정적 명칭 때문에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비단 필자의 친척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같은 질병 명칭도 조속히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척은 10살 때부터 간질을 앓아왔는데 발작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꿈꿀 수 없었다. 어딜 가도 간질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간질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

정신과도 마찬가지다. 소위 '정신병자'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변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치료 자체를 방해한다. 정신병도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질환인데 스스로 피하고 숨기다 보니 제때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간질이나 정신 질환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치매를 알츠하이머로 고치고, 동물의 광우병도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조류독감도 AI라고 고쳤듯이 말이다.

▲정은채·광주시 광산구 복룡동

사 설

# 문화 외면하는 광주, '문화수도' 부끄럽다

광주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공연과 전시회 등이 풍성하게 열리고 있지만 객석은 썰렁하기 그지없다. '문화수도' 광주가 부끄러운 수준이다. '문화수도'를 내세우기에 앞서 척박한 관람문화부터 바꾸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문화도 경제처럼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의 말처럼 '문화로 밥 먹고 살자'면 좋은 공연과 전시 등에 수준 높은 관객이 자기 돈으로 티켓을 사줘야 문화 전반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광주의 문화적 토양은 척박하다. 몇몇 대형 작품을 빼고 광주에서 열린 공연과 전시 대부분은 관객 동원에 실패했다. 연극 한 편에 관람객이 20~30명에 그치고, 클래식 음악 공연에 가족·친지·동문 등이 자리를 지켜서는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없다. 초대권만 선호나는 풍토에서 조수미나 사라 장 같은 스타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에선 서울 등 유명 기획사들이 광주 공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공연을 기피하면 광주시민들은 고급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줄어 들게 된다. 흥행 실패와 공연 기피, 지역문화 침체 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문화수도'는 요란한 구호나 문화전당 같은 거창한 건물 짓기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가정과 사회에서 문화 마인드를 기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공연이나 전시회를 찾게 하는 등 문화적 소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도 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계도 반성해야 한다. 문화트렌드에 맞춰 참신한 공연과 전시 기획 등 공을 들여야 관중이 몰릴 수 있다. 예산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검토해야 한다. 쥐꼬리만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30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 '눈먼 돈' 쌀 직불금 비리 철저히 규명해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 실태가 충격적이다. 공무원을 비롯 공기업 임직원과 의사, 변호사 등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에서도 편법 수령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이 차이가 날 때 85%를 정부가 경작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상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장에선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이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챙겨왔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공무원들까지 제도를 악용해 제 호주머니를 채웠다니 한심하고 부끄럽다.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짜' 농민들이 직불금을 챙기는 바람에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 7만여명이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쌀 직불제가 양도소득세 탈루나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 '나랏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풍조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부당하게 받은 직불금의 환수는 당연하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엄중한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

허술한 제도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농어촌에선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넘쳐 '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감사원과 농림부, 지자체 등은 직불금 제도의 허점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이런 풍토를 바로잡지 않는 한 '나랏돈은 영원히 눈먼 돈'일 수밖에 없다.

無 等 鼓

## 전국체전

가장 먼저 열린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 창립된 조선체육회의 첫 사업인 전조선야구대회다. 올해로 89회를 맞은 전국체전은 그동안 숱한 스포츠 스타를 배출해 왔다. 프로스포츠가 태동하기 전인 80년대 초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회이자 개최 시·도에서는 한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체전 개막식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화려한 카드섹션과 마스게임 준비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됐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시·도별 스카우트전도 치열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회식부터 폐회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기가 TV로 생중계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대단했다. 독재정권 시절엔 국민들의 총화단결을 유도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인기가 예전만 못하나 전국체전은 여전히 빈사상태에 있는 아마스포츠의 보루다. 메달을 못따더라도 순위에 따라 점수를 주는 채점제도로 스포츠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실업팀이 줄줄이 해체되는 와중에 일부 시·군·구가 운동부를 육성하는 것은 전국체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10위권을 유지하는 밑거름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여수를 비롯한 전남도내 일원에서 열린 올해 전국체전이 16일로 열전 7일간의 경기를 마감한다. 올해 전국체전은 베이징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출전해 일부 종목은 관중들로 만원 사례를 이뤘다.

여수시는 '친환경 저탄소'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체전 개막식 때 축포 대신 물대포를 쏘아 올렸다. 역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 보성군도 대회장을 대형 녹차밭 사진으로 장식해 보성녹차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체전은 이제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다. 개최도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스포츠 마케팅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 |
|---|---|---|---|---|---|
| 편집국안내 | | 사회2부 | 2200-619 | 경영지원국 | 2200-511 |
| 〈대표 FAX | 222-4918〉 | 〈FAX | 227-0118〉 | 〈FAX | 222-8005〉 |
| 편집부 | 2200-629 | 문화생활부 | 2200-626 | 광고마케팅국 | 2200-521 |
| 정치부 | 2200-616 | 여론매체부 | 2200-628 | 〈FAX | 227-9500〉 |
| 경제부 | 2200-617 | 체육팀 | 2200-627 | 디자인 | 2200-536 |
| 사회1부 | 2200-618 | 사진부 | 2200-690 | | |
| 〈FAX | 222-4267〉 | 조사부 | 2200-570 | | |

| | |
|---|---|
| 문화홍보국 | 2200-541 |
| 〈FAX | 222-0195〉 |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 〈FAX | 227-9500〉 |
| 서울지사 | 02-773-9331 |
| 〈FAX |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